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

(김철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78
----------	------

발의연월일 : 2013년 11월 20일

발 의 자 : 김동수, 김정택, 김철진, 나정숙, 박은경,
박영근, 송두영, 성준모, 윤미라, 윤태천,
이형근, 전준호, 한갑수, 함영미, 황효진
(15인)

1. 주문

- 안산시의회는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관리감독의 강화를 요구하며,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산시 관내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식품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국내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응 조치로는 계속적인 방사능 유출을 감당할 수 없어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가 하루에 약 300t 씩 인근 해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미비한 대응 조치로 인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주변국과 국제 사회의 우려와 불안이 확대되고 있으며,
- 특히 일본 최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 중의 방사능 오염 확산뿐만 아니라 바다를 통해 유입되는 방사능 물질로 인한 수산물 오염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일본산 수산물의 '기준치 이하 안전' 운운하며 수입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3. 건의안 : 덧붙임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의 실제규모와 피해상황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후쿠시마 공포’라고 일컬을 만한 국민적 불안은 후쿠시마 원자로가 용융되어 지하로 침투함에 따라 고농도로 오염된 방사능이 지하수는 물론 인근 바다로까지 유출되는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원전사고가 범국가적인 위해 요소로서 특히 인접국가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와 피해를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숨기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출하를 금지하고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음식물에 관한 잠정규제치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인접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피해의 확산을 막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일본 최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 중의 방사능 오염 확산뿐만 아니라 바다를 통해 유입되는 방사능 물질로 인한 수산물 오염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전수(全數)조사’를 하지 않고 일부만 채취해 검사하는 ‘샘플조사’만을 시행하여 국민들의 불신만을 키우고 있으며, 8개 지역의 일본 수산물과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한다고는 하나 그 또한 일본 정부가 출하를 자체 중단한 품목에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염 기준치 또한 일본 기준치에 따라 지정하는 등 방사능 오염 식품의 차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불안은 더욱 가중되어, 국내산 수산물 시장까지 소비감소에 따른 매출 격감으로 이어지는 등 관련 업계의 피해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다. 중국·대만 등 다른 인접국가의 경우,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의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안산시의회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 건강권·행복권을 수호하고,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사능으로부터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과,

더불어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산시 관내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친환경 우수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정부는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모든 수입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의 확고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등 식재료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지금도 일본산 농산물이 중국산이나 국내산으로 둔갑해 식탁에 오르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 농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 조치와 더불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1. 안산시는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특히 취약한 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경로당, 학교 등 관내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이 확고하게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무상급식확대에 따른 국내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19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